

## [문화칼럼] 우리 문화의 불바다를 가고 있다

- 신상언 집사 (낮은울타리 편집인) / 1995

미국에서 마이클 잭슨의 신작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노골적으로 뉴에이지를 찬양하는 게 나와 있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살펴보면 풀 스크린 기법이라 하여 죽은 사람의 얼굴을 집어넣고 돼지 먹따는 소리, 별떼가 웅웅거리는 소리, 배경과 오버랩 되어 나타나는 악마의 형상 등 다양한 잠재의식 기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번 마이클 잭슨의 뮤직 비디오 중 스크림(Scream/ 괴성)이라는 걸 보니까 불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종교의 혼합, 명상을 뜻하는 메디에이션(Mediation)이라는 선명한 글자, 결부좌하고 손가락으로 원을 만든 채 참선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 등을 애써 집어넣은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21세기가 문화전쟁의 시대라는 걸 이제는 누구나 다 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교회와 세상,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 간에도 문화로 인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임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문화(특히 대중문화)를 악세사리나 간식 정도로만 여겼으나 지금은 밥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그 문화의 영향으로 의식주의 양태나 사고까지도 바뀌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

이따금씩 이긴 하지만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 모방범죄의 세계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철부지 청소년들의 끔찍한 이야기가 신문지상을 장식하기도 한다. 미국의 저명한 지식 사회학자인 오스쿠니스의 「무덤 파는 기독교인」이란 책을 보면 머지 않아 사탄이 문화를 통해 서구사회를 몰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크리스찬들이 돈이나 벌고 자동차 사는 일이나 관심을 가질 때 사탄은 하찮은(?) 대중매체를 통해 열심히 차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며칠 전 토론토 시내의 한 극장에서 언더시즈라는 새 영화를 보다가 내 자신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도 모르게 폭력성에 쉽게 빠져들더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도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영화를 좋아하고 있어서(어떤 중학생은 터미네이터를 예순 여섯 번 봤다고 응답한 적이 있었다) 잘 만들어진 폭력영화를 미리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극장을 찾았는데 단순한 관람객이나 영화비평가의 차원을 넘어 극장을 나올 때는 폭력을 찬양하는 숭배자(?)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스티븐 시걸(영화 속의 주인공)의 멋진 무술 품도 끝내주는 데다 악당으로 나온 배우(이름은 잊어버렸음)가 너무 악당역을 잘해내는 바람에 진짜 악당으로 착각해서 총만 있으면 달려가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더라는 것이다.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내 강의를 들은 어느 여집사는(원래 대학원생 대상의 강의였는데 아이들 문제가 심각해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다) 자기 아이들이 파워레인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무슨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호소해왔다. 파워레인저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보낼까 말까 하면서 어린 시절 내내 죽이고 부수고 싸우고 웃бет는 걸 보여준다면 정상적으로 자라 정상적으로 예수님 섬길 아이들이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

파워레인저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귀국길 비행기에서 본 신문에 정부에서 그 영화상영을 금지시켰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좋은나라 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나만큼이야 조리있게 설명을 못한 채 일본이 제작자 명단에 끼어있기 때문이라는 공색한 변명을 앞세운 조치였지만 영화상영도 나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지몽매함이 오히려 국가발전의 초석이 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다. 기독교인의 사회참여나 기독교인의 문화회복 노력이 전무하다는 걸 감안하면 사회적으로나마 그런 제도적 장치가 남아 있다는 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만세!

물론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나 언더시즈 같은 폭력영화나 파워레인저 같은 웃기는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골병드는 건 아닐 터이다. 개중에는 잘 소화시키는 아이도 있고 개중에는 잘 뛰어넘는 아이도 있고 개중에는 옛날 얘기 듣듯 시큰둥하게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로 인한 모방범죄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흡연이나 음주, 가출이나 폭력, 심지어 마약사건에까지 연루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마당에 청소년 문화를 일탈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저들의 작태를(나아가서는 사탄의 음모를)모른 척 내버려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미국의 심리학자인 월슨 브라이언 키 교수는 현대 대중문화에 들어있는 잠재의식 수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리츠 크래커에 SEX 라는 글자를 무수히 찍어놓고, 수영복을 선전하는 사진에 성적 흥분감을 교묘하게 일으키는가 하면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해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문화에 문외한인 기성세대가 볼 때는 단순한 것 같지만 문화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그리 간단하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광야세대로 풀이할 수 밖에 없는 일세대야 등 따듯하고 배부르면 그만이지만 문화 없이는 못살고 문화에 취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고 문화에 미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첨단화되어 가는 멀티미디어는 선과 악의 구세주로 쓰일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마이클 잭슨을 못 보게 만들고 영화관 근처에는 열썬도 못하게 하고 집안의 텔레비전이나 VCR을 숨기거나 불태우면 문제는 간단할 수 있다. 더러운 것 피하고 나쁜 것 보지 않고 악한 것에서 도망치면 영향력을 문제삼지 않아도 아이들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세를 보라. 21세기를 보라. 가나안 세대인 저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라. 저들이 꾸려나가야 할 미래를 내다보라. 억누르고 있는 입시, 감각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때분한 교육, 나만 옳다는 식의 자민족 중심주의 세계관, 출세와 돈에만 연관된 자녀교육의 방향제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얼마나 많은가. 도망만 다니다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자기자식이 하루종일 강패나 만나고 있다면 질겁할 어른들이 강패이상의 폭력영화를 보면 아무말 없이 내팽개쳐 두는 모순을 설명해 보라. 자기 집에서는 애들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선 천대하는 자가당착을 설명해 보라. 본당에는 카펫트를 깔아도 교육관 벽은 금이 간 채로 놔두고 본당엔 돈으로 치장을 해도 교육관은 지린내가 나도록 방치하는 무책임을 이야기 해보라. 교회학교 교사하기 힘들다고 청년들은 슬쩍슬쩍 빠져나가고 요즘 아이들 버릇 없다고 어른들은 나무라기나 하고 해외선교비는 자랑해도 교육투자에는 인색해하는 기독교를 적군은 마구 비웃고 있다.

문화교육의 단계는 왓처(Watcher)로 시작된다. 즉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알려주는 것이다.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의 라인이 필요한데 오늘 교회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태반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이드(Guider), 분별력을 갖춘 안내자들이 적당한 카운셀링을 하면서 방향 제시를 잘 해야 한다. 어떤 문화를 분리하고 어떤 문화를 보존하며 어떤 문화를 변형시킬 것인가에 능숙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프로듀서(Producer) 즉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이듯이 크리스찬 마인드로 만들어진 문화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지원하고 키우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화사역자로 부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하고 은사와 재능을 주심에 대한 감사, 직업을 통한 부르심의 확신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어야 한다.

오늘 나는 문화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건 해외선교하는 일 못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문화사역자를 키우는 건 신학교에 가라고 부추기는 것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문외한이라고 해도 하나님 주신 분별력으로 세상을 본다면 대중문화의 무서운 불바다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하고, 하나님이 문화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 방면에 전문가들이 많이 일어나서 평신도들을 돕는다면 놀라운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오만번 이상의 살인장면을 목격하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슈퍼마켓에서 음란물이 찍혀있는 잡지를 아무렇지 않게 사며 한국의 청소년들이 MTV나 컴퓨터 게임을 통해 대뇌를 자극하는 문화에 빠져가는 현실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가.

문화의 불바다가 일어나는데 먹고 살만하다고 자만하다가 불에 데이고 벌에 쏘이면 낭패를 어찌할 것인가. 우리 오늘 무엇인가 결단해야 한다.

**\* 출처 - 온누리신문**